

낙농·육우 산업, 한 해를 보내며...

본회 지도부 과장 | 이혜영

글머리에...

모든 대외협상에서는 국익우선을 이유로 농업의 희생을 당연시한다. 국민의 알권리, 정론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공중파에서는 국민관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농업문제 보도를 애써 외면하면서도 쌀 협상 비준반대 등 농민대회 보도에는 농민들의 과격행동과 이로인한 교통체증에만 취재가 집중된다. 우리 농업계 전체가 이렇게 몸살을 앓으면서 또 한해를 버터내는 것 같아 한숨이 저절로 흘러나올 뿐이다.

우리 낙농업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우유소비 위축으로 우유수급 문제를 걱정하면서 올해를 시작했던 것이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까지 우유수급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낙농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임시방편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들 1만도 되지 않는 농가 개개인 모두가 집유주체별로, 지역별로, 목장상황별로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목소리 내기가 힘들다고들 한다. 그러나, 우리 낙농산업이 이 땅에서 유지발전되어 나가야 한다는 대전제 앞에서는 농가뿐이 아니라 정부, 유업체를 포함한 모두의 바램일 것이고, 또 결국은 이를 이루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과 결단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면서, 협회활동 중심으로 지난 한해를 정리해 본다.

중장기 낙농발전대책 마련 협의중

03년부터 농림부가 농업농촌발전대책에서 '낙농진흥회 농가의 집유체제 직결전환'과 '원유가격의 자율결정'을 제시해왔으나, 구체적인 방안이 밝혀지지 않아 금급증을 자아냄은 물론이고, 그 사이에는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다. 5월 3일 강기갑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 낙농정책토론회에서 농림부(시안)이 처음 발표되었고, 그 주요 골자는 낙농진흥회 농가의 조합으로의 직결전환과 우유수급 조절을 위한 민간기구로서 낙농위원회 설립(낙농진흥회의 사무국 전환)이었다. 이후 7월 29일 재가동된 1차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낙발협)에서 공식으로 농림부(시안)이 발표되었으나, 토론회에서 발표한 것과 대동소이한 내용이었다. 물론, 농림부에서도 현실적으로 많은 고민 끝에 대책(시안)을 만들고 발표했겠지만, 과연 이 방안이 근본대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비단 생산자뿐만 아니라, 학계나 낙농전문가들도 의문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위해 협회내 '집유체제 개편대책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고, 협회(시안)을 11월 1일 제4회 이사회에서 확정된 직후 낙발협에 제시하였다. 농림부(시안)을 전면부인하고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협회에서는 중장기 낙농산업 발전방안 마련에 있어 목표(비전)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지는는데 있다. 목표(비전)를 수립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재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만이 농가들이 정부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는 낙농정책의 기본인 우유수급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인데, 무엇보다도 학교우유급식 제도화를 비롯한 다각적인 소비확대 방안을 낙농정책과 연계하여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유수급 문제와 관련하여 협회(시안)의 주요 골자는 이렇다. 직결체제로의 전환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농가 거래교섭력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 거래교섭력확

보와 전국단위 우유수급 조절을 위해 생산자 보드인 '원유판매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또한, 낙농·유업의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중립·조정할 수 있는 기구로서 정부(학계), 생산자, 유업계가 참여하는 '한국낙농발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밖에 우유소비 확대 방안으로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및 중고교우유급식 확대, 자연(신선)치즈의 개발 확대, 대북 어린이 우유지원 등을 제시하였고, 원유생산비 절감과 토지이용형 낙농추진, 유업체의 경영합리화 방안 등의 낙농·유업 경쟁력 향상 방안,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 조정, 우유수급 상황 등 투명한 정보공개, 검사공영화 유지강화, 합리적인 생산비조사 방안 마련, 유업체(조합)도산·폐업시 정부지원 등의 농가 안전장치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11월 8일 전북을 시작으로 하여 전국 11개 지역에서 낙농순회강습회를 개최하면서 낙농발전대책에 대한 논의와 농가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강습회에서는 전국단위의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과 이를 대처하기 위한 농가결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3차례의 낙발협 회의가 있었고, 또 실무위원회가 수차례 걸쳐 개최된 바 있다. 이미 낙발협 회의에서 협회가 제시한 목표(비전)설정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낙농산업 발전의 장기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데는 합의한 바 있다. 물론, 농림부(시안)과 협회(시안)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공통된 사항도 있을 수 있다. 모두가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제시된 방안인 만큼, 서로의 입장을 강요하기에 앞서 이에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빨리 대책을 만들어내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낙농산업 발전의 근본대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우유보내기 운동' 전개와 06년 의무낙농자조금사업 도입 예정



낙농발전대책 마련에 있어 생산자, 유업체, 정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선행과제가 바로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노력이다. 소비 확대 대책없이 현재의 낙농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고, 농가의 생산감축이 아닌 소비확대를 통한 우유수급 안정만이 우리 낙농산업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우리협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함께 6월 1일 63빌딩에서 '제1회 우유의 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바 있다. 물론, 우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우유가 기호음료가 아닌 필수식품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또한, 협회에서는 굿네이버스, 서울신문사와 공동으로 '통일우유보내기 운동'을 연말까지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국내 우유가 남으니까 성금을 모아 북한에 우유를 보내자는 것이 아니라, 우유를 식량으로 인지하여 대북지원시 쌀과 함께 우유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여, 미래 통일시대의 사회적 비용 절감과 함께 국내 우유수급 안정을 꾀하자는 취지이다. '통일우유보내기 운동'으로 현재까지 약 2억여원의 성금이 모아졌으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축산업계만의 운동에 그치지 않고 전국 각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금통을 털어 보내오는 등 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데서 더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아진 성금은 이미 1차로 지난 8월 멸균유10톤과 분유5톤이 북한에 보내진 바 있다. 올해 낙농자조금사업으로는 연초에 인기연예인 차인표가 8월부터는 축구스타 박주영 등이 출연한 TV 공익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이밖에 우유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 방송과 라디오방송과 연계한 "3대 가족소풍", 우유책자 시·군·구청 및 교육청 민원실 비치, 학교우유급식 활성화를 위한 활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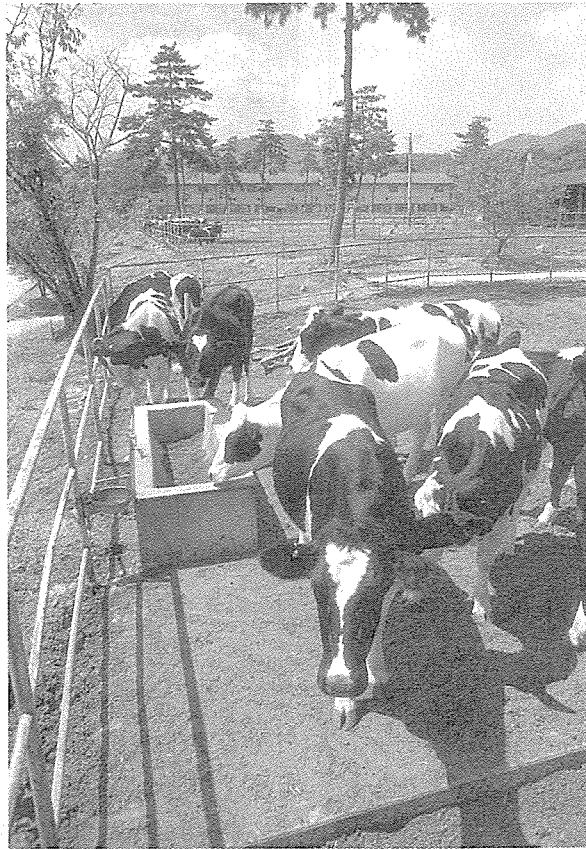
유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물론 구체적인 자조금 성과에 대해서는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매년 보고되고 있고, 지난 04년도 자조금은 자조금 1원당 24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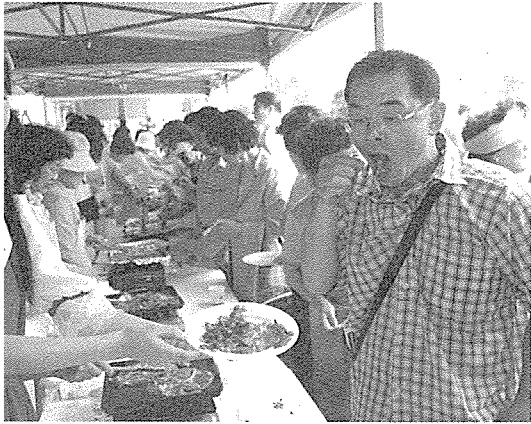
낙농자조금사업은 지난 99년 임의자조금사업으로 실시하면서 농가 동참율이 80%에 육박하는 등 자조금사업의 성공사례로 타 축종으로부터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이미 양돈, 한우 등의 타축종에서 의무자조금사업을 시행하여 100억에 육박하는 자조금으로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에 비하면 자조금사업의 선두였던 낙농자조금사업이 비록 늦은감이 있으나, 지난 11월 30일 의무낙농자조금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후 대의원회 개최로 거출금을 결정하여 0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의무낙농자조금사업이 추진될 예정에 있어, 이후 우유소비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축산업등록제와 '깨끗한 우리목장 가꾸기 운동' 전개

축산업등록제와 관련하여서는 그 동안 많은 농가가 불이익도 감수하면서도 협회의 대응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었다. 물론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건폐율 상향조정, 등록시설 및 처벌조항 완화, 두당 사육면적 완화 등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고, 이로인해 5월 12일 협회이사회에서는 축산업등록제에 등록기로 결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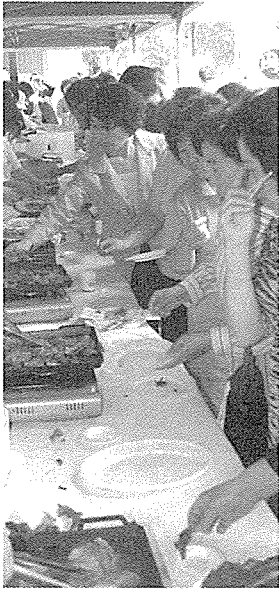
물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악취방지법' 시행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대책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하고, 그 일환으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한 목장·깨끗한 우유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3월 21일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선포식을 시작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목장환경개선 표준매뉴얼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연구가 완료되는대로 농가에 배포함으로써, 도지회를 중심으로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와함께 조사료포 면적 완화 및 직불금 상향조정 등 친환경 축산직불제 완화와 자급조사료 이용확대를 위한 지원, 분뇨자원화 정책 마련 등을 위해서도 활동 중에 있다.





■ 육우, 이제는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되어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로 연말 축산업계가 또 한 차례 술렁이고 있다. BSE발생으로 지난 03년 12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진 바 있으나, 농경연 발표에 의하면 쇠고기 수입재개시 전체 쇠고기 수입량이 1.8배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니, 수입육의 직접적인 경쟁상대인 육우의 피해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번 외국의 BSE 발생으로 국내 쇠고기 소비시장이 더 크게 위축된 점을 감안한다면 무엇보다도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여부가 전제되어야 하고, 소값 하락 등에 대한 농가피해에 대한 선대책이 요구된다. 단지,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도입과 소이력추적시스템만으로 정부의 역할을 다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매년 6월 9일은 육우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로 소비저변 확대를 위해 선포한 '육우데이'다. 올해 2회제를 맞아 협회에서는 기념시식회를 가졌고 지역에서도 자체 행사를 가졌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육우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육우가 낙농의 부산물로서가 아니라 한 산업으로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협회 육우분과위를 중심으로 육우자조금사업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으며, 축산물소비촉진법 개정으로 육우도 별도의 자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었다.



DDA, FTA 대외 무역환경 변화

국내 우유수급 불균형의 주요인이 지난 UR협상의 실패로 인한 혼합분유의 수입으로 지적되고 있고, 혼합분유의 수입은 국내의 원유수급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또한 유제품 수입 또한 계속 늘어나, 95년 93%에 달하던 자급율은 지난해 72%까지 하락한 상황에 있다. 이경해 열사의 희생이 있었던 지난 2003년 칸쿤 각료회의가 결렬된 바 있으나, 오는 12월 홍콩에서 제6차 각료회의가 개최될 예정에 있고, 또 얼마전 부산 APEC에서는 DDA회담의 조속 타결을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물론, 우리협회에서도 타 농민·축산단체와 연대하여 대응활동을 준비중에 있으

나,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지위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 그나마 고율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탈지·전지분유 또한 큰 폭의 관세감축이 예상됨은 물론이다.

한·칠레 FTA체결 비준동의에 한차례 흥역을 겪고 발효된지 1년이 지나 예상치 못했던 돼지고기 등 축



산물 수입이 증가했다는 보도로 인해 향후 FTA 협상에 있어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다시한번 깨닫게도 했다. 앞으로 한·미 FTA, 한·캐나다 FTA, 한·EFTA FTA 등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FTA 체결이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할지라도, 유제품·낙농제품을 민감품목으로 제외하고 어떻게 낙농산업을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 3월 21일 협회에서 개최한 한·일 낙농국제세미나에서도 한·중·일 FTA 체결시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시유시장 조차 결코 장담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한 것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현재보다는 조금 더 나은 병솔년이 되길 바라며...

협회에서는 그밖에 낙농문제와 관련된 축사시설의 농업용시설 포함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 활동, 축발기금의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세 환원 등의 건전경마추진위원회 활동 주도, 2005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최 등 타 농민·축산단체와의 연대활동에도 적극 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협회내의 분과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이 있었다. 청년분과위원회에서는 낙농현안에 대해 협회활동과 발맞추어 대응활동을 전개하였고, 여성분과위원회에서는 우유요리 시식회 등 우유소비 홍보활동에 만전을 다했다. 또한, 육우분과위원회에서도 육우농가의 권익대변과 육우산업 기반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지난 3, 4년간 낙농가들이 아스팔트바다에서 울부짖어서 그랬는지, 그에 비하면 지난 한해 동안의 낙농상황은 그나마 조용한 듯 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글썽하다. 집유체계 개편(제도개선)으로 뒤숭숭하고 슬렁이고 있다. 다가오는 병솔년에는 조금이라도 안정된 낙농상황에서 낙농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면서 협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단합하고 힘을 모아준 낙농육우농가와 지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협회는 낙농육우농가를 위해 결성된 낙농육우인의 대변단체인 만큼 농가 중심의 활동으로 더 큰 성과가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